

제12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호평

기사입력 : 2010년 08월 31일 08시 48분

(아시아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제12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경모습.(사진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2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이 오는 11월21일까지 열리고 있다.

3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에 따르면 한국관에서는 지난 27일 권문성 커미셔너 주재로 국내외 건축계 전문인사들, 커미셔너, 비평계 주요인사 및 언론 기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식을 가졌다.

한국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는 건축가 권문성씨가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고 신승수(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구(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정구(구가도시건축 대표), 하태석(아이아크건축 대표) 등이 작가로 참여해 'RE-PLACING, Documentary of Changing Metropolis Seoul, 압축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다.

한국은 전시에 대한 시상식에서 한옥을 베니스로 가져와 그대로 재현해 내고, 현재와 미래의 한국의 주택의 변화를 다양하게 선보이는 등의 전시를 진행해 각계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지만 아쉽게 수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제12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은 5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사람들이 건축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시작돼 브라질 상파울루비엔날레, 미국 휘트니비엔날레와 더불어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